

2 예의 노세포 검사 표본은 생식기관이나 호흡기관 등에서 생기는 편평 상피세포암종과 매우 유사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였다. 혈성 및 괴사성의 도말 배경에 종양세포들이 단독으로 흩어져 있거나, 몇 개씩 뭉쳐져 있었고 풍부한 각질화로 인하여 핵이 없는 영상(ghost) 세포들도 관찰되었다. 개개의 종양세포들은 오렌지색 또는 황색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면서 각질화와 초자질화한 고리(kerathohyaline ring)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종양세포의 핵은 불규칙하면서 농축되고 진하게 염색되었다.

## 12. 간의 전이성 유암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Rectal Carcinoid Tumor Metastasized to Liver

박찬필, 박찬금, 이중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위 장관에 발생하는 유암종은 대개 그 크기가 작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개 무증상이다. 악성의 근거는 원격전이와 근육층의 침범 및 림프절 전이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간에 전이된 유암종은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여 촉진 가능할 수 있다.

저자들은 우상복부 동통과 함께 촉진되는 간 비대가 있는 환자에서 간에 다발성의 종괴 세침흡인 결과 유암종으로 진단된 1 예를 경험하였다. 초음파 소견상 간에 미만성으로 다발성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 중 제일 큰 것은 9 cm 이었고 중심부에 낭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었다.

세침 흡인 도말상 상당히 많은 수의 작고 둥근 세포가 도말되었으며, 세포들은 다형성이 없이 균일한 양상이었으며, 핵은 둥글거나 난원형이었고, 비교적 섬세하고 균일하게 퍼진 염색질을 보였고, 세포질은 거의 없었다. 세포들은 개개의 세포나 성근 집단을 형성하였고 간혹 합포체(syncytium)를 형성하였다. 기관 모양의 양상은 세포 도말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세포 군집에서는 전형적인 꽃줄(festoon) 양상을 보이는 유암종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환자는 그 후 대장 조영술 상 직장에서 1×1.5 cm의 점막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생검상 유암종으로 확진되었다.

## 13. 췌장의 악성 소도세포종 1 예의 세침흡인생검 소견 Cytologic Findings of Malignant Islet Cell Tumor of the Pancreas

김의정, 최윤정, 김규래\*, 정우희, 이광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및 차병원 해부병리과\*

40 세된 여자환자가 이틀간의 상부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특이소견은 없으며, 오심, 토혈, 혈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내분비 이상의 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상 만성 병색을 보이고 결막은 창백하였으며 혈압은 80/60 mmHg로 매우 낮았다. 임상 병리학적 검사상 백혈구는 15,300/mm<sup>3</sup>, 혈색소는 9.1 mg/dl, 혈침치는 30% 였고, 공복시 혈당은

위내시경 검사상 위저부의 후벽에 1 cm 크기의 용기된 병변이 관찰되었고,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췌장의 체부와 미부가 미만성으로 커져 있었으며, 췌장의 피막 및 위장의 저부도 침윤이 의심되어 췌장의 악성 종양을 의심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세침흡인 세포학검사를 시행하였다.

세포도말 소견상 배경은 비교적 깨끗하였으며, 중등도의 세포 밀도를 보였다. 종양세포들은 특징적으로 매우 균일하였고 세포질은 적고 불분명하였으며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핵은 둥글면서 핵막은 얇고 핵의 염색질도 대개 균일하였으며 핵소체는 불분명하였다. 세포학적으로 비정형성 세포의 존재만 언급하고 분명한 진단은 보류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원위부 췌장에 백색의 단단한 종괴가 있으며 췌장의 피막과 위저부의 후벽에 유착되어 있었다. 췌장의 두부는 간문맥, 상부장간맥 정맥 및 대동맥과 단단히 유착되어 있어서 절제가 불가능하였으며 비장은 현저하게 커져 있었고 비장정맥도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조직학적 검사상 종양세포들은 작고 균일하며 핵은 둥글고 세포질은 호산성 또는 양염성이며 약간의 과립상을 보였다. 종양세포들은 얇은 섬유혈관 조직에 의해 리본 또는 꽃줄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 뇌이랑형 (gyriform)의 성장양상을 보였다. 췌장의 피막 및 주위 연부조직을 침윤하며 박리된 림프절 8개 중 1개에서 전이를 보여 췌장의 악성 소도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

췌장의 세침흡인 생검이 많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췌장의 소도 세포종이 비교적 드물고 문헌에도 췌장의 소도세포종에 대한 세포학적 진단기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저자들이 경험한 1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 14. Cytologic Features of Myeloid Metaplasia in Spleen

Gyeong-yeob Gong, Jaegul Chung, Seongryul Park,

Ghee-young Choe, Ensil Yu, and Inchul Lee

Department of Pathology,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Aspiration biopsy of the spleen is seldom used for tear of hemorrhage. The experience is very limited, but the procedure was reported to be of particular use in the evaluation of myeloid metaplasia, Gaucher's disease, and amyloidosis. It has been assumed that splenic hematopoiesis in adult humans occur very infrequently and is predominantly associated with hematological disorders. Myeloid metaplasia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accompanies myelofibrosis of the bone marrow as well as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and is part of the primary process.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associated with fibrosis is found frequently in the liver and spleen, but seldom in other organs.

We describe a case of splenic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with bone marrow fibrosis, which was confirmed through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The patient was a 69-year-old male, who was diagnosed as myelofibrosis by bone marrow biopsy, and had splenic mass.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of splenic mass was done. The cytologic features revealed many megakaryocytes, and myeloid precursors, which was compatible with myeloid metaplasia.